박도환 전남도청 축산정책과장

전남도, 전국최대 오리 주산지 '오리산업의 메카'

전국 사육마릿수 절반이상인 300만마리 사육
오리농가 규모화 진행 '맞춤형 오리정책' 필요

"전남은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의 오리 주산지로써 전국 사육 마릿수의 절반 이상인 30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오리농가들이 대한민국 오리산업을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산업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 과장은 전남지역이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메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자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우리 지역의 오리 생산액은 6,914억원으로 전남 축산물 생산액 3조5,000억원 중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가축입니다. 사료가격 폭등 AI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리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 과장은 오리산업이 점차 규모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오리산업이 점차 규모화되면서 2013년 호당 평균 1만5,000마리에서 올해 1만8,000마리로 20% 확대됐습니다. 게다가 1만 마리 이상 사육 농가 비중도 2013년 89%에서 올해 9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리농가들도 상당히 규모화를 진행하며 산업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오리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남도에서는 오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요산업으로의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펼치고 있다.

"명실상부 전국 최대의
오리 주산지 전남
대한민국 오리산업을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최선의 노력"

박도환
전남도청 축산정책과장

축종별 생산액(전남)

(단위 : 억원)

구분	'16	'17	'18	'19	'20	'21	전년대비 증·감	
							금액	증감율
계	23,578	25,995	27,422	28,093	27,960	34,990	7,030	25.1%
한육우	6,891	6,580	7,281	7,890	9,344	10,771	1,427	15.3%
젖소	1,580	1,535	1,557	1,758	1,660	1,614	△46	△2.8%
돼지	7,346	7,705	6,976	6,968	7,608	9,205	1,597	21.0%
닭	4,163	5,408	4,894	4,099	4,561	5,571	1,010	22.1%
오리	3,598	4,767	6,714	7,378	4,474	6,914	2,440	54.5%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사료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배합사료 첨가용 사료효율 개선 지원사업 7억5,000만원을 편성해 지원했습니다."

박 과장은 특히 근본적인 AI 방지를 위해 오리농가들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에서는 사육시설 개선과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해 축사 시설현대화,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사업을 지원하고 오리의 골격 개선 및 골절 예방, 면역증강을 위해 가금 칼슘제 900톤, 10억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집중 호우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염려하며 박 과장은 농가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가에서는 환풍기를 가동해 축사 실내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급여해 가축 폐사율을 최소화 해 주십시오. 전남도에서는 이를 위해 3,000호 농가에 12억8,000만원을 들여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배합사료 첨가용 사료효율개선 지원사업

신규 사업으로 7억5,000만원 편성 지원

국제 사료가격 폭등 농가 어려움 해소

축종별 현황(道 전국 점유율 14%)

구분	'18	'19	'20	'21	'22	전국대비
한육우(천두)	503	532	564	601	633	17%(2위)
젖 소(천두)	30	30	30	29	28	7%(5위)
돼 지(천두)	1,109	1,165	1,177	1,207	1,194	11%(6위)
닭(백만수)	21	19	22	21	21	12%(5위)
오 리(천수)	4,549	4,543	4,360	3,769	3,641	61%(1위)

가축사육 현황(상위 시군)

순위	전체	한육우(두)		젖소(두)		돼지(두)		닭(천수)		오리(천수)	
1	나주	장흥	62,429	나주	6,641	무안	131,217	영광	6,279	영암	1,367
2	영암	영암	61,306	영암	3,292	나주	125,640	나주	6,256	나주	1,313
3	함평	나주	57,681	순천	3,138	함평	83,287	함평	4,184	장흥	651
4	무안	해남	55,446	영광	2,069	영암	47,015	영암	3,990	구례	553
5	영광	함평	52,048	보성	1,719	화순	42,428	무안	2,897	강진	391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집중 호우-폭염 기승

축사 환풍기 가동 폐사율 최소화 노력

3,000호 농가에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박 과장은 장마와 폭우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평소 재난을 대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마철 집중 호우에 따른 축사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배수로를 정비하고 비가 그친 후에는 충분히 실내를 환기시켜 습도를 낮춰주고 수시로 분뇨를 제거해 유해가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박 과장은 오리고기의 우수함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만큼 오리농가들이 함께 노력해 오리산업의 부흥을 이끌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리고기는 대표적인 알카리성 식품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질환 예방에 좋고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축산물 품질 고급화뿐만 아니라 위생 및 안전성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만을 생각하는 공장식 축산에서 벗어나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무항생제축산물 및 HACCP(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등 환경친화적 축산을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남도에서도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